



청소년 문화공간 'JU' 역촌동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JU' 역촌동은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배움은 포기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터입니다. 학교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여 진로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서울주보를 통해 이곳 소식을 전하고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342명의 이웃께서 45,095,77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으로 우선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담카페 대화'가 필요해' 거리 상담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상담카페 대화'가 필요해'는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형성과 아웃리치 활동을 하며 거리에서 만나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쉴 공간과 컵밥,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기존에는 기관 차량이 없어 지원 물품을 실어 나르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필요 물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활용되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조명 교체를 통해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후화된 의자와 책상을 교체하였습니다. 곳곳이 파손되어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

던 의자와 책상을 교체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로 파손되어 조각이 떨어지는 등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위험했던 욕실 타일을 교체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요리 시간에 조리하며 주방 후드가 잘 작동되지 않아 힘들어했었는데, 후원금으로 주방 후드도 시공하여 쾌적한 주방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사랑의 손길 후원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마련할 천막을 비롯해 많은 양의 지원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교체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 주신 따뜻한 사랑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다시 베푸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JU' 역촌동)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

- 그동안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18년 한 해동안 '사랑의 손길'에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http://cc.catholic.or.kr> (모바일 가능) • 전화 신청: 727-2034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 입금일, 입금액, 입금명을 알아야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 바랍니다.